부처님은 평생 걸식의 삶을 사셨다.



불 · 법 · 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선재불교대학) 도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충해공원 내)
☎ 055)633-6555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세존의 일불제자로써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 곁에 세존을 닮아가는 불법(경전)의 바른 가르침을 실천하는 이는 그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래서 현자들은 삭발염의를 꺼리고 있으며 다만 불법은 시장통 이천원짜리 국밥집 할머니의 넉넉한 국자 속에 있고, 장바닥 난전에 꿰매고 덧댄 허름한 소쿠리에 있고, 폐지 주워 판돈으로 유기견을 돌보는 독거노인의 구루마에 있으며, 밟아도 밟아도 돋아나는 이름 없는 풀뿌리에 있을 뿐이다.

일부 사찰은 불교대학까지 운영하며 정법을 한다면서 실제 하루 종일 하는 행위는 삼재풀이 기도 산신 · 용왕 · 사주 철학 · 방생 · 성지순례 · 기왓장장사 · 다도 · 수능합격 기도 · 신년기도 · 위폐(만년 · 평생 · 영구) 스님생일(어느 큰스님 법문에서 출가자가 생일 찾는 것은 정신 나간 일.....) 우담바라 · 각종바위 · 바위에 동전 붙이는 행위 · 남성 심벌만지는 것 · 탑돌이 · 경을 머리에 이고 도는 행위 · 돈 액수에 따른(큰등 · 작은등) · 등종류(108 · 사업성취 · 재수 · 합격 · 승진 등등) · 그림(달마도 등) · 극락발원티켓 · 철야기도 · 각종신도회 · 절 짓는 불사 · 각종기도(운맞이 · 운수대통 · 재수대통 · 해돋이 등) · 진산식(거지가 진 산식 이라니....) · 합창단 · 산사음악회 · 천도재(소천도재 · 대천도재 · 특별천도재 등)... 도대체 불교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 생전예수재는 재 지낼 돈으로 불우이웃에 기부하고 미리 선업을 닦기 위해 장애인단체, 요양원, 빈민촌락가 아니면 고향 부모 찾아 효행하도록 함.**

*** 천도제나 49재는 조현병환우와 같이 영가를 다루는 일이다.**

천도제나 49재는 지내면서 조현병환자는 왜 정신병원 운운하나, 조현병환자의 특징은 내가아닌 절대자(영가)가 정신을 빼어 그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재는 그 대상을 직관을 통해 수행력(법력)으로 영가를 제도해야 할 것이고, **그 직관능력이 없는 자가 재를 지낸다는 것은 하나의 퍼포먼스에 불과할 뿐이다.**

제발 좀 어느 큰 스님처럼 솔직해지자.

또 산문에 수능합격기도 한다고 현수막 걸어놓고 합격발원문에 수험생 사진까지 붙여서 부처님 전에 들이미는 행위, 삼재풀이기도 한다고 남녀 속옷을 그 신성한 부처님 면전에 올려놓는 행위들을 하며 추잡하고 저질스러운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데, 도대체 크고 작은 절 할 것 없이 어른들은 뭘 하는지 만약 **그곳에 바른 수행자나 아라한과를 얻은 이가 있다면 그걸 그냥 보고도 못 본 체 했겠는가.** 큰등 · 작은등 · 인등도 마찬가지다. 그걸 묵인한다면 아라한도 바른 수행자도 아니지. 이러한 무당 행위를 하루 종일 하는데 거기에 무슨 가피가 있겠으며 불보살을 비롯 모든 신장이 처음부터 외면할 것이다.

(사례1: 실명→ 광명)

* 현재도 기독교인인 보살이 아들문제로 법회마치고 친견을 하고 싶다고 한다. 아들이 고3학년인데 학급에서 반장하며 공부도 잘했었는데 근래에 머리가 혼란스러워서 공부가 집중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아들을 스님기도 좀 받으면 하길래.... 이런 내기도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하며 쓸데없는 짓 한다고 나무라자, 물러서지 않고 부부가 난감해하는 것이다. 왜 그런고 하면 이분들은 2016년도에 딸이 조현병으로 인해 인연이 되었지만, 여기 오기 전 전국 유명한 대형사찰 · 목사 · 신부 · 무당 · 기 치료사 · 체면술사 · 퇴마사 등등 찾았지만 결국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을 때, 소승이 어느 큰 단체에 법문을 나갈 때 처사님이 유일하게 불자신분으로 거기에 왔다가 알게 되었음. 그럼 아들이 내기도 받겠다고 하더냐 하니 누나를 롤 모델로 봤는지 기도를 받겠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그때가 안거중 이었고 그놈은 방학을 목전에 두고 있었기에 방학하면 하자고 하며 0월 0일날 새벽 안거에 데리고 오라고 했다. 참고로 소승은 기도를 항상 대중이 다 보는데서 하며 일부 신도님들(5~10명)은 기도에 동참 시킨다. 그래서 **여기는 사부대중 전원이 목격자이고 사례자들이다.** 신도님들과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직관을 했다. 이놈은 머리가 아니고 왼쪽 눈 하고 왼쪽 발목이야 하며 첫날은 눈 기도를 해주었고 둘째 날은 발 기도를 해주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멘붕이 온다는 것이다. 스님이 어떻게 정확하게 다 아는지 하며, 스님이 무섭다고..... 스님이 뭐 도사라나. 참고로 발목은 축구를 하다 다쳤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요법회날 부모와 함께 아들이 들어오며 선뜻 내 앞에 와서 합장을 하며 서류를 한 장 내미는 것이다. 그 서류를 보니 안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이다. 왜 이런 걸 나한테 가져오냐고 하자 그 부모가 스님때문에 군에 가게 됐다고 하길래, 무슨 소리냐 하며 앞에 나와서 얘기하라 했다. 사실은 아이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왼쪽 눈 신경조직이 죽어감에 실명위기에 있었고, 그걸로 인해 군대는 물론 사회진출에 큰 장애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군 입대 영장이 나오자 안과에서 장애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키 위해 검사를 했는데 모든 게 정상으로 나온 것이다.

년년이 그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왔었는데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군 입대 연기를 하고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

(사례2: 조현병)

* 사회복지사가 부탁을 한다 "한 사람 좀 살려 달라"고 조현병인데 24시간 몸이 아파 잠도 못자며 종교는 불교란다. 그럼 0월 0일에 데려오라 하며, 환우 보호자가 꼭 같이 오라했다. 약속한 날 세 사람이 왔는데 여기 스님보고 우선 얘기를 해보라 하고, 나는 서둘러 일을 끝내고 친견실에 오니 노보살 한 분이 슬그머니 일어나 나가길래 그 일행을 시켜 들어오게 했는데 안 들어오는 것이다. 알고 보니 밖에 있는 이는 시어머니고 한분은 친정어머니며 환우는 40세 중반 여성이다. 지금부터 물을테니 소상히 답변하라 하며 묻기 시작했다. 어느 절에 다니는지 부적 · 삼재풀이 · 기도(산신 · 용왕) · 사주 · 방생 · 성지순례 등등 구체적으로 물으며 지금 부적을 소지하고 있느냐 하니 가지고 있다고 한다. **왜 갖고 있느냐 묻자 스님 삼재풀이 · 기도 · 부적 등등 안 하는 절이 있느냐고 반문한다.** 그럼 그것 가지고 있으면 병도 낫고 또 소원 성취한다고 그 절 스님이 합디까. 한평생 그들의 유혹에 빠져 그런 것들만 하니까 당연히 사기운이 엄습해서 정신을 도둑질 당해서 일어나는 조현병(정신병)등등을 앓을 수밖에..... 그런 것을 가지고 거기 사찰 스님한테 일생을 매달리지 왜 왔어요? 하는데 환우는 계속 통증을 호소하며 친정엄마와 같이 모녀가 살려 달라고만 한다. 내가 안 아프게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시간 이후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오라고 여기 스님과 친정모친을 보냈는데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 저 분은 어느 절에 다니느냐고 하자 충청도 대형사찰에 30년 지기란다. 그래서 환우한테 물었다. 그럼 거기서 몸 낫게 한다고 각종기도와 재를 몇 번이나 했고 금전 손실은 얼마나 되느냐고 묻자 큰 천도재와 구병시식을 7번이나 했다고 한다. 근데 왜 이 모양이냐고 하자, 스님! 스님! 만 하고 있다. 아니 시어머니가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 하니.... 오로지 아프다고 좀 살려달라고만 한다. 두 분도 문제는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저 밖에 있는 저분입니다. 나가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데리고 오세요. 하며 스님과 친정모친을 내보냈다. 그리고 바로 들어오기는 오는데 문 턱에서서 안을 보길래, 소승이 그의 눈을 보며 무엇이 두려워 이 스님 앞에 오지 못하나 하자, 그 큰절 30년지기 인데 의리 때문에 끊지 못합니다 하며 일행을 불러내어 가버린 것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 시어머니가 30년지기를 끊을 때 그때 오십시오 하며.... **한국불교 현실이 개탄스러워 두 모녀 보고 그 절에 가서 변상을 요구하라 했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출가자라면....**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

어느 큰 스님께서 저잣거리에 도인은 없고 앵무새들만.....

자 또 다시 각 방송매체와 수행을 근본으로 하는 이들에게 제안한다. 몇해전 jtbc방송에서 '10대점술가를 찾아서' 라는 이런 프로는 사양하고 이제는 참 수행자대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 또 세계0상대회, 세계00선대회, 즉문즉설 등 앉아서 말만하는 말잔치는 그만하고, 수행자답게 입은 굳게 다물고 수행력(법력)을 나툴 수 있는 장을 열자. 분명 말로 하는 것은 출가자의 몫이 아니다. 이미 정신상담, 마음챙김, 마음다스리기, 명상 등은 각 분야 교수를 비롯 유학파 석 · 박사들과 김제동 같은 연예인을 비롯 전문인들이 차고 넘친다. 이것은 분명 저들의 영역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정신병(조현병)등이 오기 전 예방교육에 불과하다. 특히 정신을 잃어버린 조현병 등은 정신병원에 보낼 것 이 아니고 수행자의 법력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 세계00대회와 명상단체에서 찰나에 이동하며 공중부양을 한다나.. 그런 것 한들 저들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하나의 눈속임이지 여기에 은산철벽운운하며 수십안거를 충만했다는 이와 방송스타급 종교인모두 점검차(시험차) 출현해야할 것이다. 수행자는 수시로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때 점검(시험)내용은 말기암환자(전이된 암환자), 희귀병(백혈병등), 정신을 잃어버린 조현병 등 3종류의 환우를 수행자의 기도(법력)를 통해 새 희망을 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노보살님들이 입만 열면 우리 절은 천년고찰이고 영험하며, 우리스님이 신통하다며 많이도 하던데 사실이라면 우물 안에서(절집에서) 소문만 무성하게 하지 말고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광장에 나와 그 수행력(법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 평생 주지한번 안하시고 명예나 권력까지도 마다하시며 오로지 옷 한벌로 수행자로 살다 가신 소승의 법 은사께서 항상 일러주시던 말이 생각난다.

"성불은 출가자의 목표가 아니다, 다만 출가자가 꼭 거쳐야할 과정이며 우리의 목표는 성불을 통해 중생을 이익되게 해야한다. 중생의 이익을 도모하지 못하면 그것은 성불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상 말씀하셨다. 오늘따라 스승이 그립다.

※ 접수처 055-633-6555 (010-3143-5302)
연등사(선재불교대학) | **도 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우:53211)

사례자 연락처

- **010-3143-5302 (윤 ○○)**
- **010-5699-3173 (박 ○○)**
- **010-8291-9423 (변 ○○)**
- **010-9707-4808 (박 ○○)**
- **011-9143-0098 (김 ○○)**
- **010-4807-6932 (박 ○○)**



❖ 본 내용은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